

2012년 서울시 자살사망자 통계분석

Analysis of suicide deaths in Seoul ; based on national statist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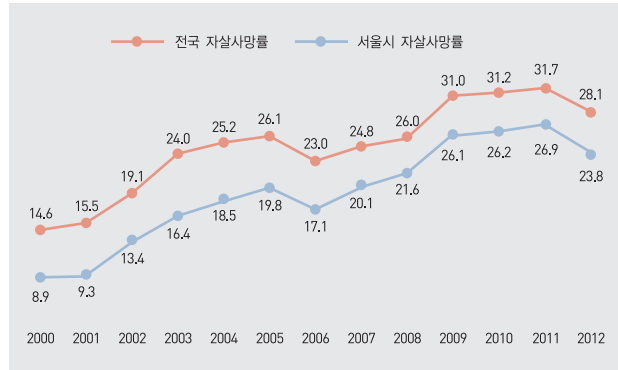
김동욱¹, 이구상¹, 이명수¹
D.W. Kim, G.S. Lee, M.S. Lee

1. 전국과 서울시 자살사망에 대한 비교

1)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당)

전국과 서울시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2006년 이후로 2011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가, 2012년에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자살사망률 감소폭은 전국보다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률 연도별 변화추이(인구10만 명당)



2)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 추이

전국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1만 5천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다시 1만 4천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수는 2009년 2천 5백명을 돌파한 이후 3년 동안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2012년 다시 2천 3백명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를 1일당 자살사망자수로 비교해 보았을 때 7.6명(2011년)에서 6.5명(2012년)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사망자수 연도별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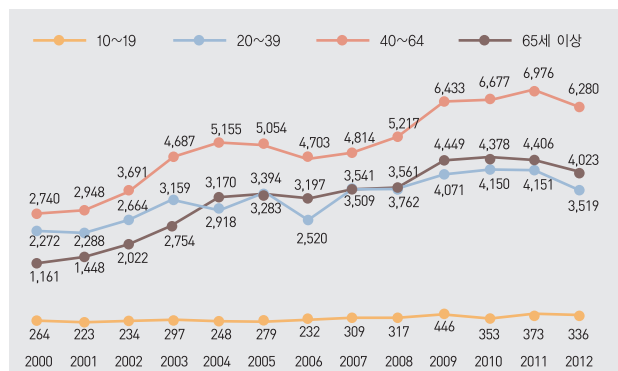
연도	전국 자살사망자수	서울시 자살사망자수
2000	6,460	919
2001	6,933	959
2002	8,631	1,376
2003	10,932	1,670
2004	11,523	1,887
2005	12,047	2,013
2006	10,688	1,742
2007	12,174	2,045
2008	12,858	2,200
2009	15,413	2,662
2010	15,566	2,668
2011	15,906	2,722
2012	14,160	2,391

3)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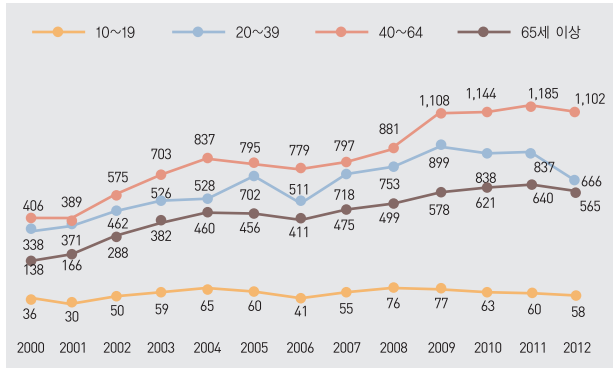
2012년 연령대별 전국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전반적으로 2011년에 비해 모두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에 있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연령대는 20세~39세로 17.96%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40세~64세가 11.08%, 10세~19세가 11.01%, 65세 이상이 9.55%였다.

※ 0~9세 1명, 불명 1명

★ 전국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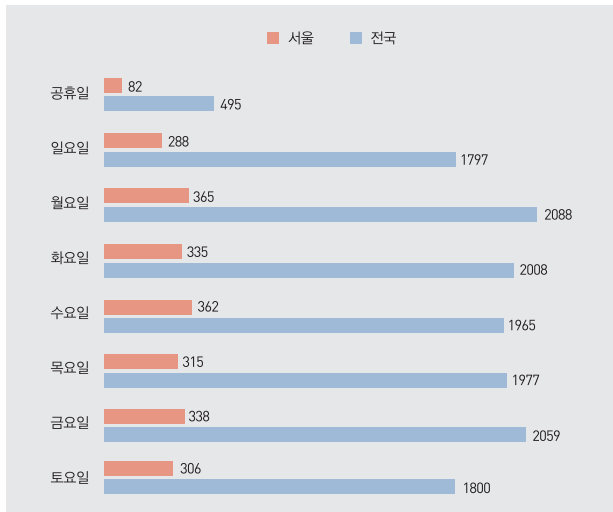
★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4) 서울시 연령대별 자살사망자수 변화추이

2012년 연령대별 서울시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2011년에 비해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에 있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연령대는 20세~39세로 25.68%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65세 이상이 13.27%, 40세~64세가 7.53%, 10세~19세 3.45%였다.

★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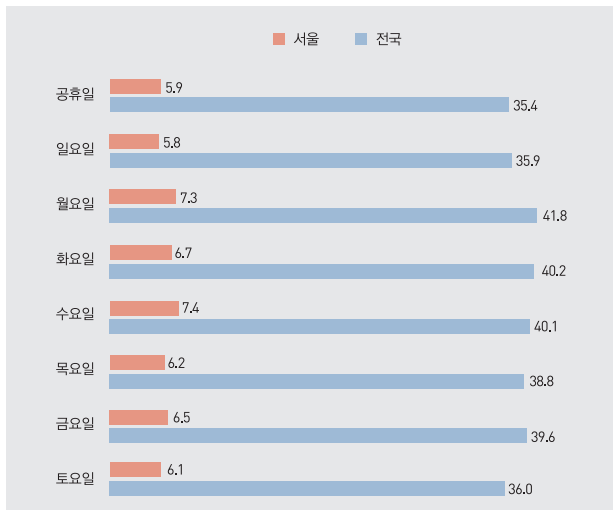


5) 전국 서울시 요일별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 토요일, 수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 토요일, 목요일, 화요일, 금요일, 수요일, 월요일로 나타났다.

★ 전국 서울시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



6) 전국 서울시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

전국의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공휴일(35.4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일요일(35.9명), 토요일(36.0명), 목요일(38.8명), 금요일(39.6명), 수요일(40.1명), 화요일(40.2명), 월요일(41.8명)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요일에 따른 1일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일요일(5.8명)이 가장 낮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공휴일(5.9명), 토요일(6.1명), 목요일(6.2명), 금요일(6.5명), 화요일(6.7명), 월요일(7.3명), 수요일(7.4명)로 나타났다.

7) 사망원인별 순위

사망원인별 순위에 있어서는 2011년에 이어 2012년에도 자살률이 전국과 서울시 모두 4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망원인별 순위

	2010	2011	2012
전국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3 뇌혈관 질환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6 폐렴	6 폐렴	6 폐렴
	7 만성하기도 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7 만성하기도 질환
	8 간 질환	8 간 질환	8 간질환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10 고혈압성질환	10 고혈압성 질환	10 고혈압성 질환
서울시	1 암	1 암	1 암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2 뇌혈관 질환
	3 심장질환	3 심장 질환	3 심장 질환
	4 자살	4 자살	4 자살
	5 당뇨병	5 당뇨병	5 당뇨병
	6 폐렴	6 폐렴	6 폐렴
	7 간질환	7 간질환	7 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8 만성하기도질환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9 운수사고
	10 고혈압성 질환	10 고혈압성 질환	10 알츠하이머병

2. 서울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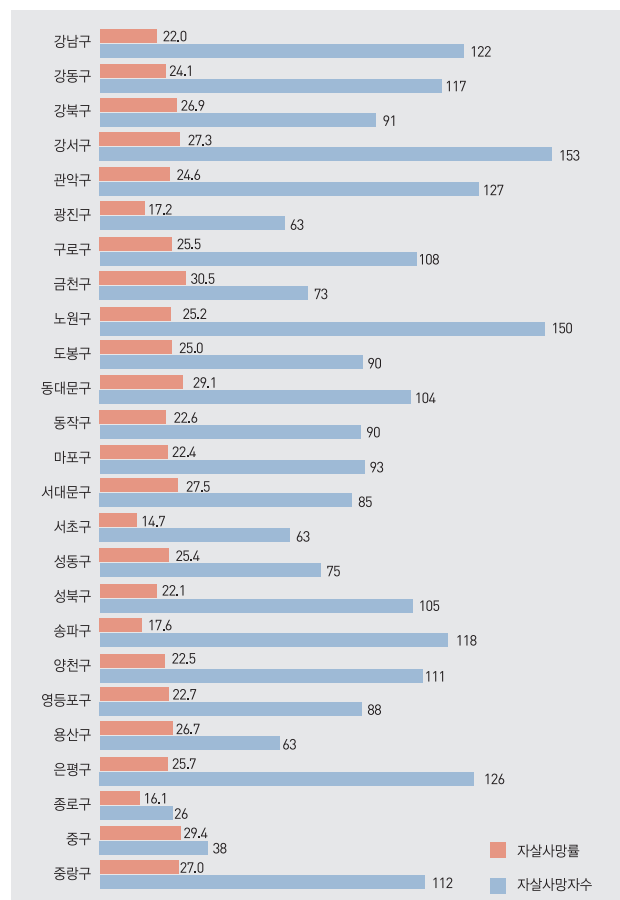
8)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사망률

2012년 서울시 내 25개구 자살사망자수는 강서구가 15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노원구(150명), 관악구(127명), 은평구(126명) 순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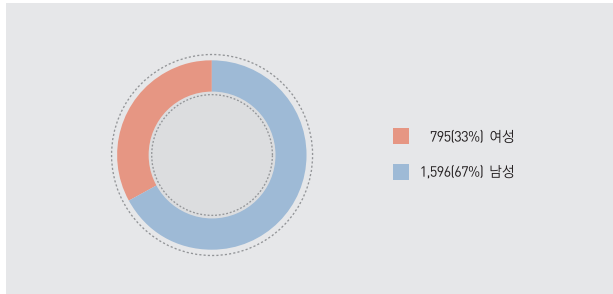
2011년 서울시 내 25개구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은 금천구가 30.5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 순서로는 중구(29.4명), 동대문구(29.1명), 서대문구(27.5명), 강서구(27.3명)로 나타났다.

전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률(28.1명)과 비교할 때, 금천구, 중구, 동대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자살사망률을 보였다. 또한 2011년의 자살사망률 20명 미만이었던 자치구는 서초구였으나, 2012년에는 서초구, 종로구, 광진구, 송파구로 나타났다.

★ 25개구 자살사망자수 및 자살사망률



★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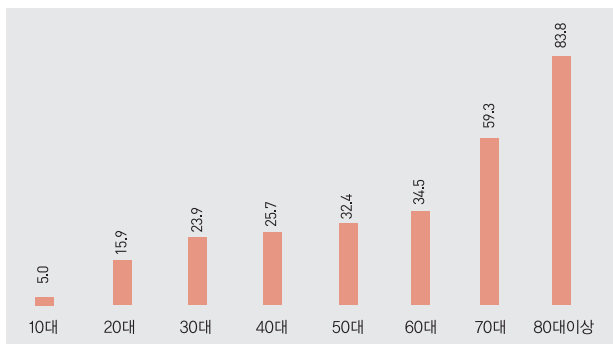


9)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2.2배)과 비교할 때 격차는 일부 감소하였다.

남성의 자살사망률은 전년대비 14.74% 감소한 반면 여성은 6.47% 감소하여 여성에 비해 매우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자살사망자수는 92명 감소한 반면, 남성의 자살사망자수는 146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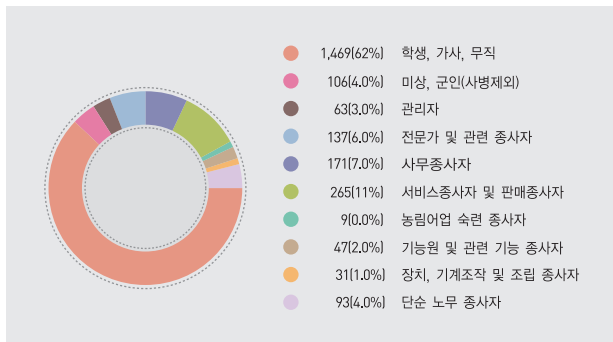
★ 연령대별 자살사망률



10) 연령대별 자살사망률

서울시의 연령대별 자살사망률을 살펴보면,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2012년 연령대별 자살사망률 증감추이에서는 10대(2.41%p 증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 특히 20대에서 전년대비 가장 큰 폭의 감소(23.38%p)를 보였다.

★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11) 직업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직업에 따른 자살사망자수는 가사·학생·무직이 전체의 62%(1,469명)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 종사자가 265명(11%), 사무종사자가 171명(7%),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가 137명(6%), 단순 노무 종사자가 93명(4%) 등으로 나타났다.

★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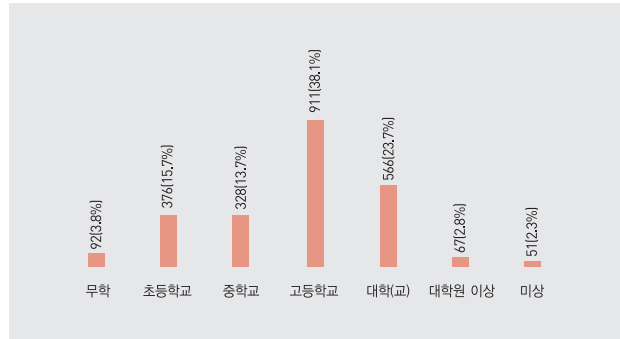
12)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혼인상태는 배우자 있음이 1,079명(45.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미혼이 761명(31.8%), 이혼이 323명(13.5%), 사별이 222명(9.3%)으로 나타났다. 2011년과 비교해볼 때, 배우자 있음이 42.2%에서 45.1%로 증가한 반면, 미혼 33.3%에서 31.8%로, 이혼 14.7%에서 13.5%로, 사별 9.4%에서 9.3%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3)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 교육정도는 고등학교 졸업이 911명(38.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으로는 대학(교) 졸업이 566명(23.7%), 초등학교 졸업이 376명(15.7%), 중학교 졸업이 328명(13.7%), 무학이 92명(3.8%), 대학원 이상이 67명(2.8%)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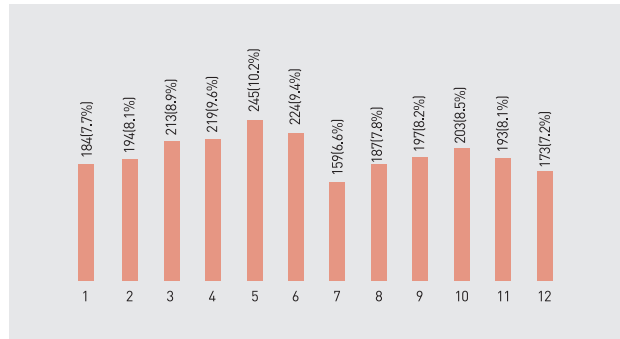
★ 교육정도별 자살사망자수



14) 월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월별 자살사망자수는 5월이 245명(10.2%)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 순으로는 6월이 224명(9.4%), 4월이 219명(9.6%)으로 나타났다. 또한 봄과 초여름에 자살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여름에 급감한 후 초가을 이후 재 증가세를 보이다가 초겨울 감소 추세를 보이는 'M'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비교한 결과 상반기 자살사망자수는 1,279명(53.5%(2011년 50.6%)), 하반기 자살사망자수는 1,112명(46.5%(2011년 49.4%))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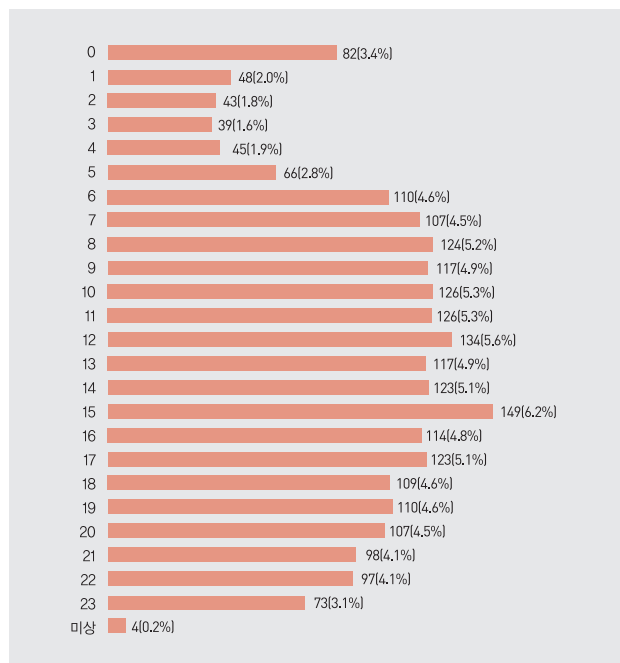
★ 월별 자살사망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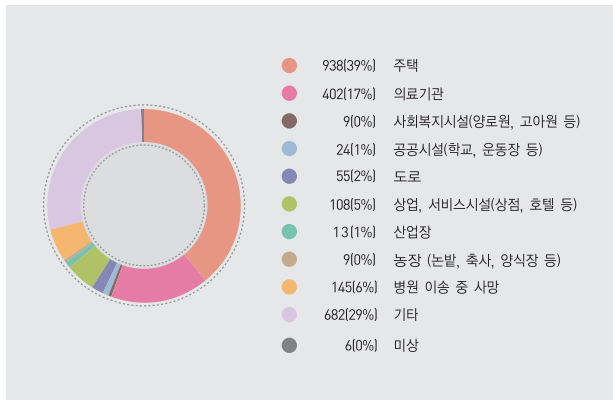
15)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는 오후 15시가 149명(6.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 순서로는 12시가 134명(5.6%), 10시와 11시가 각각 126명(5.3%), 8시가 124명(5.2%), 17시가 123명(5.1%)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반대로 가장 낮은 빈도는 03시가 39명(1.6%)이었으며, 다음순서로는 02시가 43명(1.8%), 04시가 45명(1.9%)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의 경우 12시가 779명(5.5%)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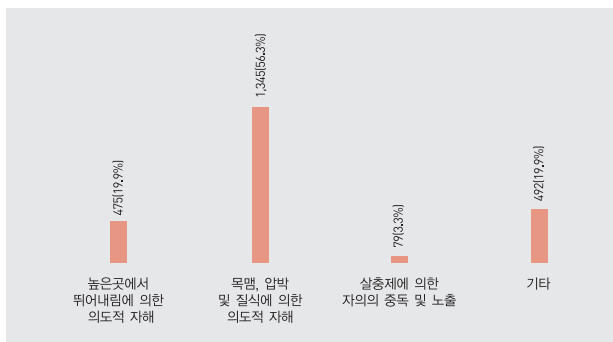
★ 시간대별 자살사망자수



★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 성·연령대 비교



16) 장소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사망 당시 장소는 주택 內가 938명(39%)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의료기관이 402명(17%), 병원 이송 중 사망이 145명(6%)으로 나타났다.

17) 사망원인별 자살사망자수

서울시의 자살사망자 사망 당시 원인은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1,345명으로 전체 자살사망자수의 약 56.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순서로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475명으로 전체의 약 19.9%,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이 79명으로 전체의 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자살사망자수가 331명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에 의한 사망자수는 오히려 14명(2011년 16.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성·연령대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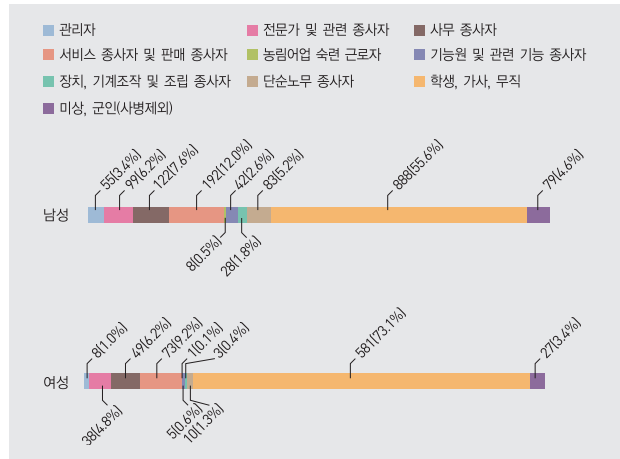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연령별 자살사망률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모두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자살사망률이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는 30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40대에서 60대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70대부터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

연령대별 자살사망자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은 50대가 22.5%(359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 순서로는 40대 19.5%, 20대 15.8% 등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은 20대가 22.1%(176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다음 순서로는 50대 17.2%(137명), 40대 16.0%(127명)으로 나타났다.

19) 성·직업 비교

서울시 성별에 따른 직업별 자살사망자수는 남성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율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직업에서는 남성의 비율이 높았으나 가사·학생·무직의 경우 여성(73.1%)이 남성(55.6%)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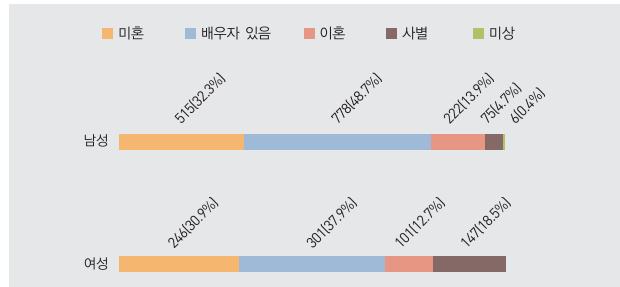
★ 성·직업 비교



20) 성·혼인상태 비교

서울시의 성별에 따른 혼인상태별 자살사망자수는 남성이 사별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 혼인상태에 따른 자살사망비율에 있어서 남성은 배우자 있음에서의 비율이 48.7%인 반면 여성은 37.9%로 나타났다. 또한 사별의 경우 여성(18.5%)이 남성(4.7%)에 비해 약 3.94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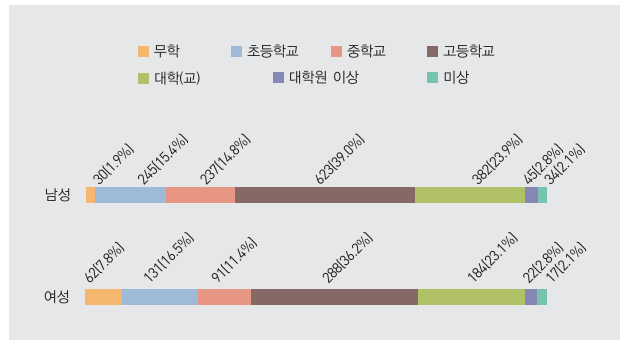
★ 성·혼인상태 비교



21) 성·교육정도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성별에 따른 교육정도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초등학교에서 대학원 이상까지의 영역에서 모두 높았으나, 무학에서는 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은 무학, 초등학교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원 이상은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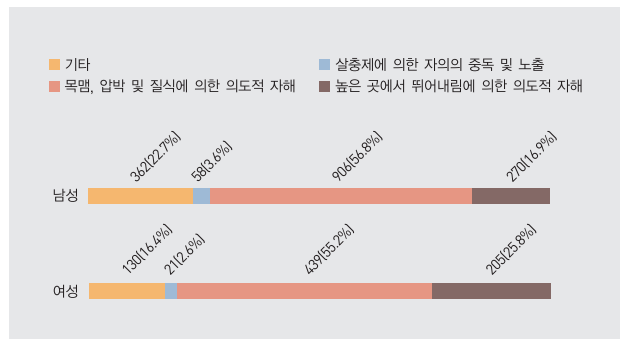
★ 성·교육정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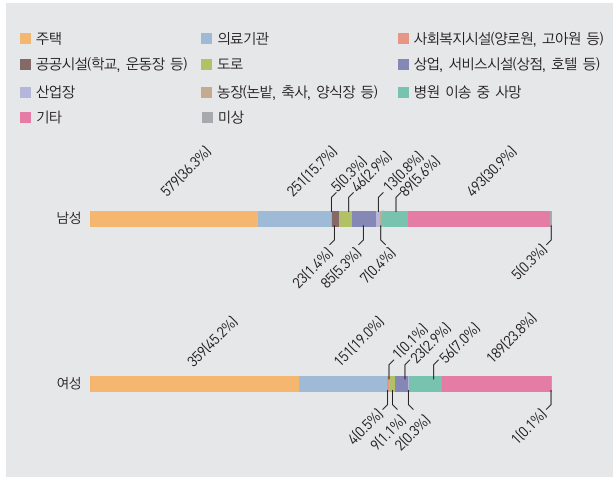
22) 성·사망원인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모든 자살수단에서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남성이 살충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여성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성·사망원인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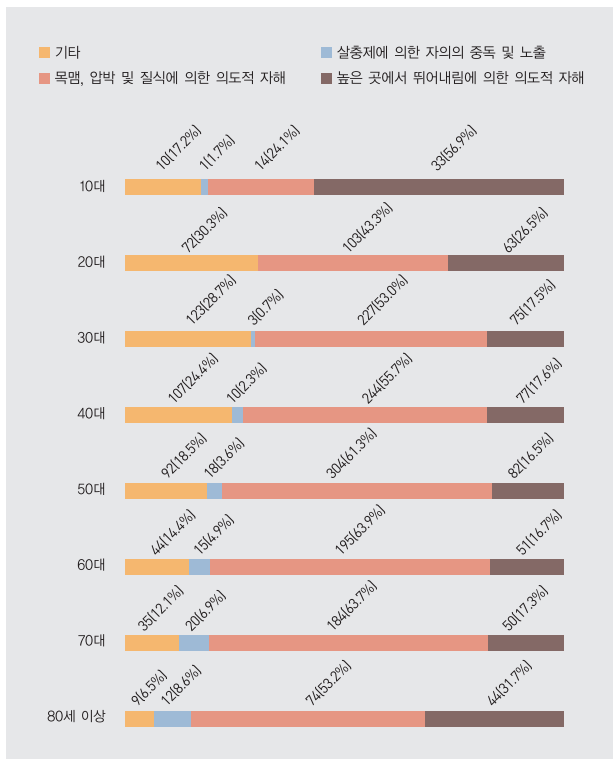
★ 성·사망장소 비교



23) 성·사망장소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성별에 따른 사망장소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주요 장소에서 대부분 높은 빈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율에 있어서는 여성이 주택 내, 의료기관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령·사망원인 비교



24) 연령·사망원인 비교

서울시 자살사망자의 연령대에 따른 사망원인의 비교에서는 1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나타냈는데, 특히 60대가 63.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70대 (63.7%)와 50대 (61.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는 높은 곳에서의 뛰어내림에 의한 의도적 자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56.9%), 성인 및 노인의 사망원인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목매, 압박 및 질식에 의한 의도적 자해와 큰 차이를 보였다.

25) 연령 · 사망장소 비교

전 연령대에서 주택 내가 가장 높은 빈도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의료기관으로 나타났다.

★ 연령 · 사망장소 비교

